

退溪문학에 나타난 自然觀과 人間觀**

—「陶山十二曲」을 中心으로—

金 光 淳*

• 目 次 •

- | | |
|------------------|---------------------------|
| 1. 序 論 | 3.2. 忘世의 警戒 |
| 2. 退溪文學에 나타난 自然觀 | 4. 退溪文學에 나타난 自然觀과 人間觀의 關係 |
| 2.1. 風流의 對象 | 4.1. 賞自然과 養性 |
| 2.2. 起興의 對象 | 4.2. 自然과 人間의 合一 |
| 3. 退溪文學에 나타난 人間觀 | 5. 結 論 |
| 3.1. 溫敦의 心性 | |

I. 序 論

퇴계 이황(1501~1570)의 문학에 관한 연구는 시조, 가사, 문학관, 한시, 외국문학과와의 영향관계 등 다섯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 시조는 「陶山十二曲」을 중심으로 하여 연구되었는데 그 선단을 陶南 趙潤濟가 열었다.¹⁾ 陶南은 조선조 사람문학에 있어서의 ‘自然美의 發見’을 그 내용의 핵심으로 한 江湖歌道の 전개란 맥락에서 「陶山十二曲」을 떠올리고 이를 퇴계인격의 통털은 표현물로서 도학자 시가의 대표적 작품으로 규정하였고, 李家源·徐首生 등에 의해 그 주제와 관련 사실 등

* 경북대 국문과 교수

** 연민학회, 「淵民學志」 제1호(1993) 게재논문

1) 趙潤濟, 國文學史, 東國文化社, 1945.

——, 韓國文學史, 東國文化社, 1963.

——, 韓國詩歌史綱, 乙酉文化社, 1954.

이 천명되었다.²⁾ 또한 崔珍源은 陶南의 이론을 발전 심화시켜 江湖歌道의 내용을 보다 체계화시켰다. 그는 꾸준히 문학과 자연 사이에 서서 그 의미를 고찰하였는데³⁾ 퇴계의 「陶山十二曲」을 자연의 규범성을 즐기는 ‘賞自然의 風流’로 규정하였다. 더욱이 퇴계가 그의 발문에서 제시한 ‘溫柔敦厚’를 서정을 규범화함으로써 서정에 순정을 기한 결과의 주체로 파악하였다. 또한 李源周에 의해 退溪 求退의 의미가 적극적인 방향으로 논리가 구체화되었으며⁴⁾, 최근의 성과로는 李敏弘의 李鼈 「六歌」와의 대비적 접근과 孫五圭의 山水文學으로서의 「陶山十二曲」연구를 들 수 있다. 李敏弘은 李鼈 「六歌」에 나타난 玩世不恭에 대한 「陶山十二曲」의 溫柔敦厚의 의미를 가능한 한 현실의 밝은 면으로 보아야 한다는 現實觀의 한 속성이라고 하여 비교적 온당한 해석을 내리고 있다.⁵⁾ 그리고 孫五圭는 자연을 소재로 삼아 山水愛好의 정신에 입각하여 산수미를 형상화한 시가와 문학작품을 山水文學으로 규정하고 「陶山十二曲」은 퇴계 山水詩의 정점에 있다고 하면서 퇴계의 山水文學은 학

-
- 2) 李家源, 退溪의 詩歌文學研究 -短歌와 詩歌에 對하여-, 退溪學研究, 退溪先生四百周年紀念事業會, 1972.
 _____, 儒家思想과 韓國文學, 韓國思想大系 I,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1973.
 _____, 退溪先生の 文學, 韓國의 哲學 4, 慶北大學校 退溪研究所, 1976.
 徐首生, 退溪文學의 研究, 韓國의 哲學 1, 慶北大學校 退溪研究所, 1973.
 _____, 退溪는 文學을 어떻게 보았나 一道·文兩立의 文學觀一, 文學思想 24, 文學思想社, 1974.10.
 _____, 退溪詩書의 特異性, 退溪學報 36, 退溪學研究院, 1982.
- 3) 崔珍源, 韓國文學과 自然觀— 陶山十二曲의 詩境—, 새시대문학 41, 1972.
 _____, 自然과 人間存在, 韓國思想大系 I,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1973.
 _____, 國文學과 自然, 成大出版部, 1977.
 _____, 陶山十二曲攷(一), 人文科學 13, 成均館大學校 人文科學研究所, 1984.
 _____, 陶山十二曲攷(二), 陶南學報 7·8, 陶南學會, 1985.
 _____, 陶山十二曲攷(三), 人文科學 14, 成均館大學校 人文科學研究所, 1985.
- 4) 李源周, 退溪先生の 文學觀, 韓國學論集 8, 啓明大學校 韓國學研究所, 1981.
 _____, 道學派의 文學, 韓國文學研究入門, 知識產業社, 1982.
- 5) 李敏弘, 士林派文學의 研究, 螢雪出版社, 1985.

문과 문학이 융합된 훌륭한 시가문학으로서 조선조 山水文學의 독창적인 세계를 창출하였다⁶⁾고 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들 연구성과에 힘입어 「陶山十二曲」을 위시하여 漢詩作品 등을 통해 퇴계문학에 있어서의 자연관과 인간관을 살펴보기로 한다. 퇴계가 「陶山十二曲」을 짓게 된 동기는 그의 발문에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그 동기를 면밀히 검토해 보면 퇴계의 자연관과 인간관에 대한 논의의 端初가 마련되는데 그 일부를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오른쪽의 「陶山十二曲」은 도산노인이 지은 것이다. 노인이 이것을 지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 우리 동방의 가곡은 대체로 음란하여 족히 말할 것이 못 된다. 「翰林別曲」과 같은 류는 문인의 입에서 나온 것이지만 ‘矜豪放蕩’하고 ‘褻慢戲狎’하여 더욱 군자가 숭상할 바가 아니다. 오직 근세 李龜의 「六歌」라는 것이 있어 세상에 널리 전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이것(翰林別曲類) 보다 좋다고는 하나 ‘玩世不恭’의 뜻이 있고 ‘溫柔敦厚’의 실이 적은 것이 애석하다. 노인이 본디 음률을 알지 못하나 오히려 世俗의 음악은 듣기 싫어할 줄은 알아서 한가히 지내며 병을 고치는 여가에 무릇 性情에 감동된 것을 매양 시로 나타낸 것이 있다. 그런데 지금의 시는 옛날의 시와는 달라서 읊을 수는 있어도 노래할 수는 없다. 만약 노래할 수 있도록 하자면 반드시 시속의 말로 엮어야 하는 지라 대개 나라 풍속의 음절이 그렇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李氏의 노래를 간략하게 모방하여 「도산육곡」을 지은 것이 둘이니 그 하나는 뜻을 말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학문을 말한 것이다. 아이들로 하여금 아침 저녁으로 익혀 부르게 하여 의자에 기대어 듣게 하며 또한 아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노래하고 춤추며 뛰게 한다면 아마도 비루한 마음을 씻어내 感發하고 融通하게 되어 노래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서로 유익함이 없을 수 없을 것이다.⁷⁾

6) 孫五圭, 退溪의 山水文學 研究, 成均館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0.

7) 右陶山十二曲者 陶山老人之所作也 老人之作此何爲也哉 吾東方歌曲 大抵多淫不足言如翰林別曲之類 出於文人之口 而矜豪放蕩 兼以褻慢戲狎 尤非君子所宜尙 惟近世 有李龜六歌者 世所盛傳 猶爲彼善於此 亦惜乎其有玩世不恭之意 而少溫柔敦厚之實也 老人素不解音律 而猶知厭聞世俗之樂 閑居養疾之餘 凡有感於情性者 每發於詩 然今之詩 異於古之詩 可詠而不可歌也 如欲歌之 必綴以俚俗之語

「翰林別曲」類와 李鼈의 「六歌」에 대한 평가는 기존 詩歌에 대한 불만이다. 이 둘은 모두 도덕적인 측면에서 혹평한 것으로 이는 「翰林別曲」의 작자와 李鼈이 자연을 대하는 태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즉 「翰林別曲」에서는 관능적 유희를 제공해 주는 대상⁸⁾으로 나타나 있으며, 李鼈의 「六歌」에서는 과도한 忘世와 潔身敖世의 대상으로⁹⁾ 자연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문시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퇴계는 보여 주고 있다. 당시 詩語에서 民族性情을 가장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음절이라는 것을 깨닫고 마침내 社會德化의 한 방편으로 쓰고자 했다.

따라서 국문시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논외로 하고 「翰林別曲」類와 李鼈 「六歌」의 자연관과 인간관이 퇴계문학에서는 어떻게 극복되고 있는가를 밝힘으로써 퇴계문학에 있어서의 자연관과 인간관을 고찰하고 나아가 퇴계문학에 있어서의 자연관과 인간관의 관계를 살펴 그 의미를 考究해 보고자 하는 것이 본연구의 목적이다. 본고에서의 퇴계문학이란 그의 시조작품인 「陶山十二曲」을 중심으로 지칭하되 경우에 따라 퇴계의 한시 등 다른 작품도 원용하기로 한다.

蓋國俗音節 所不得不然也 故嘗略倣李歌 而作爲陶山六曲者二焉 其一言志 其二言學 欲使兒輩 朝夕習而歌之憑 而聽之 亦令兒輩 自歌而自舞蹈之 庶幾可以蕩滌鄙吝 感發融通 而歌者與聽者 不能無交有益焉(李滉, 退溪先生文集 卷之四十三, 陶山十二曲跋)

- 8) 「翰林別曲」類에 등장하는 蓬萊山 등의 道家的 三山과 牡丹·芍藥·薔薇 등 호사스러움을 상징하는 꽃들이 自然을 나타내는 題材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두 高麗 士大夫들의 官能的 享樂을 표현하는 요소로서의 기능을 가진다. 이를 崔珍源은 高麗人의 風流라 한 것으로 退溪는 이러한 風流와 自然觀을 싸잡아 비판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 9) 崔珍源, 陶山十二曲攷(二), 陶南學報 78, 陶南學會, 1985, pp.9-11. 參照.

II. 退溪文學에 나타난 自然觀

2.1. 風流의 對象

‘風流’의 사전적인 의미로는 ① 속된 일을 떠나서 풍치가 있고 멋스럽게 노는 일. 花鳥風月, ② 멋스럽고 풍치가 있는 일, ③ ‘악’음악을 예스럽게 일컫는 말 등¹⁰⁾으로 풀이하고 있다. 그 의미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때로는 향락적 놀이로서의 풍류일 수도 있고, 그윽한 精神的 遊泳으로서의 풍류일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자연을 풍류의 대상으로 인식함에 있어 「翰林別曲」類에서 보이는 그것과 「陶山十二曲」에 보이는 그것을 살펴야 할 것이다.

翰林諸儒의 「翰林別曲」은 대체로 향락의 즐거움을 마음껏 노래하고 있다. 또 安軸의 「竹溪別曲」과 「關東別曲」에서도 이러한 호사스런 풍류를 발견할 수 있다.¹¹⁾ 그러니까 이들 「翰林別曲」類에서의 자연은 관능적 향락을 제공해 주는 현장으로 설정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¹²⁾

이러한 高麗的 풍류에 불만을 품은 퇴계는 새로운 풍류를 그의 시문에 제시하고 있다. 이 풍류는 그윽한 정신적 遊泳에 다름이 아니다. 즉 퇴계는 풍류를 대체로 위의 사전적 해석에서의 ①과 ②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홀로 정자에 앉으니 여름 햇살은 밝고

獨坐林亭夏日明

10) 신기철·신용철, 새 우리말 큰사전, 삼성출판사, 1974. p.3577.

11) 安軸의 작품 「關東別曲」과 「竹溪別曲」에서는 景幾體歌의 특성이 잘 나타난다. 즉 사물에 대한 관심과 놀이를 통한 자기 과시가 그것이다. 전자에서는 관동 절경의 섬세한 묘사를 통해 사물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데 치중하였고, 후자에서는 고향 順興에서의 놀이를 통해 자기 과시를 나타내는데 치중하였다.

12) 고려인이 자연을 官能的 享樂의 대상으로만 이해했던 것은 아니다. 고려조에 있어 특히 漢詩文學의 경우, 자연에서 미를 발견하고 자연 속에 내재하고 있는 생명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것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崔沖(984~1068), 李仁老(1151~1220), 高兆基(?~1157) 등의 詩를 들 수 있다.

푸른 시내는 거문고며 푸른 산은 병풍이라네. 淸溪琴筑碧山屏
시 읊조리며 조용히 생각하니 誦詩遙想人如玉
어진이의 풍류 백세에 이름나겠네. 淸獻風流百世名¹³⁾

위 시에서 보면, 여름 햇살이 밝게 드는 정자에 앉아 병풍처럼 둘러 있는 산 아래로 거문고를 두드리듯 푸르게 시냇물이 흐른다. 그 속에서 종일토록 책을 본다거나 고요히 앉아 생각에 잠기기도 하고, 시를 읊으며 종일 돌아갈 것을 잊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퇴계의 풍류인 것이다. 「陶山十二曲」에서도 이와 같은 풍류가 그대로 제시되어 있다.

天雲臺 도라드러 玩樂齋 蕭灑흔디
萬卷 生涯로 樂事 | 無窮호애라
이등에 往來風流를 닐어 므슴홀고¹⁴⁾

初章의 ‘天雲臺’는 도산서당을 둘러 싸고 있는 주위 산수의 대표적 자연물을 표현한 것으로 도산서당의 원경묘사이며 자연경관으로서의 풍경이다. ‘玩樂齋 蕭灑흔디’는 도산서당안의 근경이다. 이것은 퇴계의 문화공간¹⁵⁾인 동시에 인식공간이기도 하다. 유유한 자연경관 속에 파묻혀 있는 소슬한 도산서당이라는 문화공간은 퇴계의 정갈한 인식공간에 다름이 아니다. 中章은 그 속에서의 독서생활을 그리고 있다. 학문의 끝없음과 독서행위에 따르는 즐거움의 무궁함을 나타낸 것이고, 終章은 ‘이등에 往來’라고 표현하고 있어 天雲臺를 중심으로 도산서당을 둘러싼 원경과 玩樂齋를 중심으로 한 근경 사이의 깨끗한 공간 속에서 독서하는 풍류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終章의 ‘往來風流’는 곧 陶山이라는 문화영역과 거기에 걸맞는 인식영역 속에서 살아가는 퇴계 자신의 생활이라고 할 것이다. 이

13) 李滉, 退溪集 別集 卷一, 「書季任倦遊錄後」.

14) 陶山十二曲 後六曲 其一.

15) 孫五圭, 앞의 책, p.56.

러한 생활의 즐거움은 흥을 동반하는데 이 흥을 동반한 생활은 곧 생활의 멋을 의미한다.¹⁶⁾ 또 이것은 문학의 미로 인식되어지는데 이로 보아 퇴계의 생활환경은 곧 풍류를 위한 환경으로서 미적 환경이라 할 수 있기에 이러한 환경들을 시로 노래하였던 것이다.

여기에서 보이는 ‘往來風流’의 풍류는 「翰林別曲」의 그것과 같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퇴계는 그 풍류를 研學의 여가에 도산서당 주위의 산수를 소요하는 일로 제시하고 있다. 퇴계는 도산서당 주위의 산수를 자주 소요하여, 그 遊賞한 바를 시에다 많이 담았는데 「陶山雜詠」은 그 대표적인 것이다. 이처럼 자연을 소요하며 정신적 세계에서 유유하게 노니는 일, 그것을 퇴계의 풍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퇴계의 풍류에 대한 인식은 소슬한 문화적 환경 속에서의 독서생활에 안주하고자 했던 것만은 아니다. 독서생활에서 한 걸음 나아가 이념적인 목적까지 성취하고자 했다.

愚夫는 알며흐거니 그 아니 쉬운가
 聖人도 몰다흐시니 그 아니 어려운가
 쉽거나 어렵거냏등에 늙는주를 몰래라¹⁷⁾

初章에서는 ‘愚夫’를 등장시켜 道는 어리석은 사람도 할 수 있는 평이한 것이라 했고, 中章에서는 ‘聖人’을 등장시켜 道는 성스런 사람도 할 수 없는 예사로운 것이 아니라 했다. 표면적으로 보면 愚夫는 할 수 있으면서 聖人도 쉽게 할 수 없는 것이 道라고 하여 條理가 서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道가 멀리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日用處에서 쉽게 접할 수 있어 愚夫를 포함한 凡人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이라 했다. 이렇게 道를 공부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지만 聖인도 다 이를 수 없다고 했다. 이것으로 퇴계는 道를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것도 빠뜨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凡人이 聖人이라는 이상을 지향하는 것은 쉬우면서도 어

16) 崔珍源, 韓國古典詩歌의 形象性,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1988, p.8.

17) 陶山十二曲 後六曲 其六.

려운 것이라고 했다. 그것은 聖人 스스로가 어려워 한 이유도 있겠지만 삶 자체의 평이한 점과 예사롭지 않은 점에 기인한 것이라 하겠다. 여기서 다시 퇴계는 終章에서 ‘늪늪주를 몰래라’고 하여 聖人の 경지를 성취하는 노력과 정열에 세월까지 망각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성취의 한 방법이 앞에서 예거한 독서생활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따라서 퇴계는 翰林諸儒의 향락적 유희의 현장으로 본 자연관을 극복하여 소슬한 공간 속에서의 독서생활이라는 풍류를 통해 성인의 경지에 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그것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목적하는 바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차원 높은 의식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그 자부심을 지켜 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퇴계는 정신적 세계에 대한 遊泳을 풍류로 보았으며 그 遊泳의 공간으로 자연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겠다.

2.2. 起興의 對象

자연을 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자연 속에서 자연과 대결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자연과의 일정한 審美的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연을 주로 美的 觀照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관점이다. 이것은 생업으로 고기잡이를 하는 어부들이 보는 강과, 일정한 흥과 함께 뱃놀이를 하면서 바라보는 강이 위의 두 관점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¹⁸⁾ 시인이 사물을 소재로 해서 시를 읊는다는 것도 대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하나는 표현대상의 사물에 감정을 의탁하여 나타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물에 접촉함으로써 감정을 일어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漢詩에서는 전자를 ‘比’라하고 후자를 ‘興’이라 한다.

대부분의 사대부들이 그러했듯이 퇴계도 자연을 인간의 정서를 순화시켜 주고 미적 쾌감을 주는 대상, 즉 흥을 일으키는 대상으로 인식하여 작품에도 그러한 세계를 그렸다. 즉 上記 자연을 보는 관점 중에서

18) 宋載邵, 茶山文學研究 —詩를 中心으로—, 서울大 博士學位論文, 1984. p.85.

두번째 경우에 입각하여 사물을 ‘比’ 또는 ‘興’의 수법으로 읊었는데 여기서서는 주로 ‘興’의 측면에서 노래한 것을 살펴 보기로 한다.

퇴계는 그 山水遊賞에 대해 “좋은 경치를 만나면 흥취가 절로 일어 한껏 즐긴다.”, “너무 춥거나 너무 덥거나, 또는 바람이 불거나 큰비가 올 때가 아니면, 어느 날이나 어느 때나 나가지 않는 날이 없다.”라고 할 만큼 자연을 두고 흥을 일으키는 대상으로 파악했다. 산수의 奇絶處를 만나면 지팡이를 끌고 나가 홀로 시를 읊조렸으며, 강을 굽어 볼 수 있는 곳에 서실을 짓고 책속에 파묻혀 있다가 花朝月夕을 만나면 조각 배를 강물에 띄우고서 홀로 오르내리며 흥이 사라져야만 돌아왔던 것이 바로 퇴계가 자연에 의해 흥을 일으키고 그 속에서 멋스럽게 지냈던 생활의 일면이다. 다음 시는 四時에 흥을 일으키며 살아가는 퇴계의 모습이 잘 그려진 작품이다.

春風에 花滿山하고 秋夜에 月滿臺라
 四時佳興 | 사름과 흥가지라
 흥들며 魚躍鳶飛 雲影天光이아 어니 그지 이슬고¹⁹⁾

초장은 陶山의 四時佳景을 읊은 것이며, 중장은 陶山의 四時佳景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四時佳興을 노래하고 있다. 그런데 ‘四時佳興이 사람과 한가지라’고 한 것은 분명히 흥의 차원에서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곧 陶山의 四時佳景의 모습은 대자연의 법칙인 理의 작용에 의한 자연 본래의 모습이다. 여기서 퇴계의 陶山隱居의 생활은 세속적 모습에서 벗어나 理를 바탕으로 한 인간 본래의 모습을 회복한 생활로 파악된다. 따라서 四時佳興의 所以然은 자연법칙의 理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자신의 도산은거를 통하여 느끼는 흥은 도덕적 선의 회복에서 비롯된 흥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퇴계는 ‘抒情으로서의 興’을 일으킴과 동시에 자연의 활발한 조화와 流行

19) 陶山十二曲 前六曲 其六.

에서 흥을 일으켜 마침내 종장에서는 ‘흐릴며 魚躍鳶飛 雲影天光이아
어니 그지 이슬고’라고 감탄하여 天理의 정연함에 대한 이념적 감흥을
노래하고 있다. 이 외에 다음의 두 수도 같은 맥락에서 창작된 것으로
보인다.

幽蘭이 在谷하니 自然이 들디도해
白雪이 在山하니 自然이 보디도해
이듬에 彼美一人를 더욱 닛디 못호애²⁰⁾

山前에 有臺호고 臺下에 有水 | 로다
빼만흔 굴머기는 오명가명 호거든
엇다다 皎皎白駒는 머리므슴 호는고²¹⁾

「前六曲」其四에서 골짜기에 있는 그윽한 난초(幽蘭在谷)와 산에 있
는 흰눈(白雪在山), 「後六曲」其五에서 산 앞에 있는 臺(山前有臺)와
臺 아래의 물(臺下有水)에서 흥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이 두 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자연을 매개로 하여 일어난 흥이 지향하는 점이 같다
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즉 전자는 이념적인 존재인 ‘아름다운 한 사
람’ 에게로 흥이 귀결되는가 하면 후자는 갈매기 노니는 江湖, 거기서
다시 江湖 밖의 세계로 작자의 의식이 전이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여
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起興은 일정한 지향점을 가진다는 것인데
이 지향점은 퇴계가 지향하는 이념적인 지향에 다름이 아닐 것이다.

이로 보아 퇴계는 자연을 起興의 대상으로 보았으며 이 때의 흥은
‘서정적인 것’에서 출발하여 천리의 질서정연함을 인식하는 데서 오는
‘본질적·이념적인 것’에로 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자
연이 이룩한 형상은 현실계에서 동시에 공존하는 형상이 아니라 퇴계의
관념 속에 통일되어지는 敍景이다. 따라서 감동을 동반하여 敍景이 관

20) 陶山十二曲 前六曲 其四.

21) 陶山十二曲 前六曲 其五.

념 속에서 통일되어지는 것이며 이것은 理의 경지에서만 가능하다. 理의 경지에서 보면 四時佳景의 所以然과 四時佳興의 所以然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념적 감동은 「陶山十二曲」의 시적 감동이기도 할 것이다.

Ⅲ. 退溪文學에 나타난 人間觀

3.1. 溫敦의 心性

퇴계철학의 본령은 그의 철학적 관심이 인간의 삶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고 인간의 도덕적 주체성을 강조하며 求仁成聖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데 있다. 漢唐儒學과 달리 인간 중심적인 전환을 가져온 程朱性理學이 주로 우주론적 理氣論의 발전을 통해 인성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 학적 이론체계나 논리적 정합성을 다지는 것이 特長임에 비하여 퇴계의 성리학은 도덕적 주체로서의 삶의 문제와 사람다움의 문제, 즉 修養論과 眞知의 실천에 관한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特長이라 할 수 있다.²²⁾ 이러한 생각들이 결국 李麓의 「六歌」를 비판하면서 「陶山十二曲」을 창작하게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퇴계는 李麓의 「六歌」를 ‘玩世不恭의 뜻이 있고 溫柔敦厚의 實이 적은 것이 아깝다.’고 평하였다. 비록 漢譯된 것이고 4장 뿐이긴 하지만 李麓의 「六歌」는 崔載南에 의해 발견되어²³⁾ 국문학계의 커다란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 작품을 검토해 보면 과연 潔身傲世의 기운이 넘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을 못마땅히 여겨 李麓의 「六歌」를 부정적으로 평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렇게 李麓의 詩歌에 불만을 품은 퇴계는 새로운 심성을 「陶山十二

22) 徐用和, 退溪의 人間觀 研究, 退溪學報 第七十輯, 退溪學研究院, 1991.p.25.

23) 崔載南, 藏六堂六歌와 六歌系 時調, 語文教育論集 7, 釜山大學校 國語教育學科, 1983.

曲」에서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그가 주장하고 있듯이 溫柔敦厚가 그것이다. 그 예로 다음의 시를 들 수 있다.

煙霞로 지블삼고 風月로 버들사마
 太平 聖代에 病으로 늘거가뇌
 이등에 바라논이른 허므리나 업고자²⁴⁾

初章에서는 그윽한 삶과 어울리는 그윽한 자연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煙霞’와 ‘風月’이다. 그러나 시대적 배경이 불운하여 이것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든다면 생각은 있어도 자신의 뜻을 그대로 펼 수가 없었을 것이다. 中章에서는 자신의 泉石膏肓을 풍류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군주의 善政으로 인한 태평스런 시대를 제시하고 있어 비로소 ‘煙霞’와 ‘風月’이 자신의 집이며 벗일 수 있게 되었음을 노래하고 있다. 終章에서는 앞의 두 장에서 제시된 그윽한 시공간 속에 시인 자신을 객관화시켜 놓고 그가 바라는 것은 오직 허물이나 없이 살아가는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어 퇴계의 溫柔敦厚한 심성을 엿볼 수 있다. 그가 이것을 실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인간은 마땅히 溫柔敦厚해야 한다는 퇴계 인간관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예로는 다음의 시를 들 수 있다.

이런들 엇다흐며 더런들 엇다흐료
 草野 愚生이 이러타 엇다흐료
 흐믈며 泉石膏肓을 고태 므슴흐료²⁵⁾

初章에서는 세상의 시비를 초월한 시인의 의식이 엿보인다. 퇴계 스스로가 사실 이념적 시비를 갈라 놓기도 하고 그 중 옳다고 생각한 것을 잡아 고집하려고도 했다. 그러나 자연 속에서마저 옳은 것이 어떠한

24) 陶山十二曲 前六曲 其二.

25) 陶山十二曲 前六曲 其一.

것이며 그른 것은 또 어떠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가 않았을 것이다. 즉 이러한 시비라는 것은 퇴계에게 너무 무거운 존재였다. 그렇기 때문에 퇴계는 시비를 놓아 버리고자 했다. 中章에서는 초야에서 어리석은 듯이 살아가는 생애가 아무려면 어떠냐고 묻고, 終章에서 다시 자연을 지극히 사랑하는 이 깊은 병을 고치면 또 무엇을 하겠는가 하고 물었다. 三章 모두를 의문형으로 끝맺고 있는 것으로 보아 겸손을 나타내어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동시에 일단의 신념을 포착할 수 있다. 이는 퇴계가 인간의 심성은 마땅히 ‘溫柔敦厚’해야 한다는 것을 잘 다듬어진 語辭로 주장한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李觥 「六歌」에서는 隱遁의 세계가 潔身傲世임을 자만하고 있다. 그러나 「陶山十二曲」에서는 그 저변에 泉石膏肓을 깔고 있지만 潔身傲世의 자만은 없다. 이는 溫柔敦厚라는 「陶山十二曲」의 시적 품격이며 퇴계정신의 품격에 다름이 아니다. 비록 溫柔敦厚라는 원색적인 단어를 노출시키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퇴계는 溫柔敦厚의 심성을 시를 통해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품격에서 우리는 기거동작을 신중히 하고 마음을 항상 專一無放의 경지에 두어 인간본성을 함양하는 퇴계의 ‘居敬’공부를 읽을 수 있다.

퇴계가 自慢이 老莊의 無爲에 흘러 潔身亂倫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한 것은 「陶山雜詠記」에서도 보인다.

옛 산림을 즐긴 자를 보건대 둘이 있다. 玄虛를 그리워하고 高尚을 섬겨 즐기는 사람이 있고, 道義를 기뻐하고 心性을 길러서 즐기는 사람이 있다. 전자를 따르면, 潔身亂倫에 흘러 심한 즉 鳥獸와 무리지어도 그릇되다고 생각하지 않게 됨이 두렵고, 후자를 따르면 좋아하는 바는 糟粕뿐이요, 그 전할 수 없는 妙한 것에 이르러서는 구하면 구할수록 얻을 수 없으니, 어찌 즐거움이 있겠는가. 그러나 차라리 후자를 위하여 스스로 힘쓸지언정 전자를 위하여 스스로 속이지 않겠다.²⁶⁾

26) 觀古之有樂於山水者 亦有二焉 有慕玄虛 事高尚而樂者 有悅道義 心性而樂者 由前之說 則恐或流於潔身亂倫 而其甚則 與鳥獸同群 不以爲非矣 由後之說 則所嗜者

일반적으로 潔身亂倫하여 鳥獸에 가까운 것은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노장사상을 이단으로 생각하는 것은 전통적 유가의 인간관이다. 퇴계도 예외는 아니어서 스스로를 속이며 거만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妙한 것은 구할 수 없을지라도 본성을 지키며 질박하게 살아가고자 했다. 이러한 생각들은 그 스스로가 겸손하고 온유한 데서 성취되는 것이다. 이로 보아 퇴계가 얼마나 玩世不恭이나 潔身亂倫을 미워하고 溫柔敦厚한 심성을 갖고자 힘썼던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溫柔敦厚는 퇴계 인간관의 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3.2. 忘世의 警戒

일반적으로 유가는 修己와 治人을 겸행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는다. 그 준거는 세상을 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덕치주의에 있다. 덕치주의에 대해서는 『大學』의 첫장에 가장 간단하고도 뚜렷한 설명이 보인다. 곧 먼저 자신의 덕을 닦고(修身), 자기의 집안을 잘 건사하고(齊家), 나아가서는 나라를 잘 다스려야 하고(治國), 끝으로는 온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어야 한다(平天下)는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생각들은 『書經』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 거기에서 堯임금의 功德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위대한 덕을 잘 밝히시어 온 집안을 화평케 하셨고, 온 집안을 친화케 하심으로 백성들을 잘 다스리셨고, 백성들을 밝게 잘 다스림으로써 온 세상을 평화롭게 하셨다. 백성들은 이 감화를 받아 화평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다.²⁷⁾

이는 修己와 治人의 관계를 논리화시킨 것으로서 修己를 이룩한 사람

糟粕耳 至其不可傳之 則愈求而愈不得 於樂何有 雖然 寧爲此而自勉 不爲彼而自誣矣(李滉, 退溪全書 卷三 詩.陶山記)

27) 克明俊德 以親九族 九親既睦 平章百姓 百姓昭明 協和萬邦 黎民於變時雍(書經, 堯典)

이 결국 治人の 경지를 성취할 수 있음을 古代 聖王 堯임금을 들어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儒家的 出處觀과도 무관하지 않아 ‘나아갈 만하여 나아가면 나아가는 것이恭이 되고, 나아가지 않을 만하여 나아가지 않으면 나아가지 않는 것이恭’이라는 생각을 심어 주게 되었다. 그러니까 항상 자신의 몸을 닦으면서도 사람들 다스림을 놓지 않으며, 사람들을 다스리면서도 자신의 몸닦는 것을 놓치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겸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이상인 군자였던 것이다. 퇴계는 물론 그 진퇴상에 있어서 退를 자주하여 修己에 힘썼지만 治道를 어그러뜨리지는 않았다. 물러나 은거하면서도 忘世는 언제나 퇴계에게 경계되었다. 이 망세에 대한 경계는 유가의 이념이며 또한 조선조 선비들의 이념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치가 이러하므로 老莊的 忘世를 유학자들은 이단시했던 것이다. ‘忘世’는 ‘機心’을 잊는 정도에 그쳐야지 그 이상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²⁸⁾으로도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쓰여지면 나아가 벼슬을 하고, 그렇지 못하면 은거하면서 자신의 덕을 쌓는다는 유가적 출처관에서 處할 때는 機心을 잊고 있으면서도 현실의식은 항상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출처관에 대한 유가적 中庸의 도에 다름이 아닐 것이다.

山前에 有臺하고 臺下에 有水 | 로다
 빼만흔 굴머기는 오명가명 흐거든
 엇다다 皎皎白駒는 머리미슴 흐는고²⁹⁾

初章은 臺 주위의 산수에 대하여 형용을 억제하면서 묘사하고 있다. 臺의 위치와 그 배경은 陶山이라 할 수 있을텐데 臺는 ‘天淵臺’와 ‘天風雲景臺’이며, 臺下의 有水는 ‘濯纓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한다³⁰⁾. 中章은 臺에서 굽어보는 경치에 대한 敍景이다. 즉 초장과 중장

28) 崔珍源, 陶山十二曲攷(二), 陶南學報 7·8, 陶南學會, 1985, p.9.

29) 陶山十二曲 前六曲 其五.

30) 李滉, 陶山全書 一 卷三, 陶山記, 退溪學研究院, 1988, p.95. 參照.

은 臺에서 眺望한 陶山 山水敍景의 집약이다. 그러나 終章의 皎皎白駒는 실재하는 산수경물이 아니라 퇴계가 山水間에 살면서도 혹여 잘못이 있을까 저어하는 마음을 비유한 것으로 江湖 밖의 세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山과 臺와 물을 배경으로 하여 갈매기는 날아다니는데, 갈매기는 그것과 벗어나 忘世할 수 있을 텐데 어찌 멀리 딴 곳에 마음을 두는가라고 물었다.

한편, 퇴계는 ‘居敬’의 한 방법인 覺醒³¹⁾을 詩化하여 항상 깨어 있고자 하였다.

雷霆이 破山하야도 聾者 못듣느니
白日이 中天하야도 瞽者는 못보느니
우리는 耳目聰明男子로 聾瞽같디 마로리³²⁾

초장과 중장에서 귀머거리는 우리가 산을 깨뜨려도 듣지 못하고 눈 먼 사람은 하늘에 해가 아무리 밝아도 보지 못한다고 했다. 異說이 유행하는 시대에 그 異說에 현혹되는 것도 ‘聾者’요 ‘瞽者’이겠지만 잠자는 의식으로 상황을 깨닫지 못하는 것 또한 ‘聾者’이며 ‘瞽者’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에서 말하고 있듯이 귀와 눈이 총명한 장부로 상황에 항상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고자 하였다.

퇴계의 이러한 인식은 ‘窮則獨善己身 達則兼濟天下’³³⁾의 현실인식의 일환으로 비록 江湖에 숨어 살더라도 뜻은 항상 나라를 다스려 천하의 백성들을 구제하는 데 가 있어야 한다는 것의 다른 표현일 것이다. 만약 兼善的 現實觀을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선비의 본분을 저버리는 것이

31) 朱子は 「大學或問」에서 敬을 伊川의 主一無適과 整齊嚴肅, 謝上蔡의 常惺惺法, 尹和靖의 其心收斂 등으로 집약하였는데, 이 중 常惺惺法이 바로 覺醒에 해당된다.

32) 陶山十二曲 後六曲 其二.

33) 『孟子』 盡心章上. 맹자의 이말은 窮하여도 몸을 바로 하고 達하면 道를 실천한다는 뜻이다. 獨善은 오직 자신을 수양해가는 노력이고, 兼善은 거기에서 한 걸음 나아가 자기와 천하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다.

다. 다시 말해 퇴계는 산수의 景物을 바라봄에 있어서도 그 景物의 현상 속에 내재한 본질로서의 이법, 유가적 출처관을 보이고자 했다. 그것은 퇴계 자신이 자연 속에서 현실 속에 사는 인간에게 보내는 따뜻한 심정의 표출이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퇴계는 機心을 잊고 江湖에 은거하고 있으면서도 현실에 대한 관심과 백성에 대한 德化의 실천을 그만 두지 않아야 한다고 인식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濫敦의 心性’에서 보았듯이 마음을 항상 집중하여 본성을 함양하는 공부와 더불어 항상 각성의 상태를 견지하여 상황에 대응하는 공부, 즉 居敬의 認識을 「陶山十二曲」이라는 그릇에 담아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IV. 退溪文學에 나타난 自然觀과 人間觀의 關係

4.1. 賞自然과 養性

퇴계는 자연을 매개로 하여 ‘道義를 기뻐하고 心性을 기르는 즐거움’이 얻어질 수 있다고 믿었다. 이것은 ‘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³⁴⁾’의 생각을 그대로 수용하여 天命之性을 좇는 것을 자명한 도덕원리로 생각하고 이를 그의 학설의 토대로 삼고 있다. 이러한 그의 견해에서 특징적인 것은 존재(Sein)와 당위(Sollen)의 일치이다. 즉 자연의 법칙(사실의 법칙)과 도덕의 법칙(당위의 법칙)이 그 근원에서 일치되는 것으로 보고 윤리적 행위를 필연적 행위로 이해하는 것은 퇴계사상의 특성이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연을 노래하는 시는 道義의 구속에서 벗어나 潔身亂倫하자는 것이 아니고, 성현의 말을 좇아 도의의 근본에 이르러서 마음을 바로 잡자는 것이라고 했다. 도의의 근본은 세상의 기운이 어떻게 움직이든지 자신의 시에서 노래한 盤陀石처럼 寂然不動해야 한다고³⁵⁾ 했으며 그러한 경지에 이르는 것이 시의 이상이라고 보았다.

34) 中庸 一章.

靑山는 옛데 하야 萬古에 푸르르며
流水는 옛데 하야 晝夜에 굿디아닌고
우리도 그치디마라 萬古常靑 호리라³⁶⁾

幽蘭이 在谷 하니 自然이 들디도해
白雪이 在山 하니 自然이 보디도해
이등에 彼美一人를 더욱 닛디 못호애³⁷⁾

위의 시에서 퇴계는 일상생활의 주변에서 평이한 자연을 매개로 하여 심성을 기르고자 했음을 볼 수 있다.

첫째 首에서는 청산의 ‘萬古에 푸르르며’와 流水의 ‘晝夜에 굿디아닌고’를 통하여 인간 속에 내재하고 있는 변하지 않는 性을 기르고자 했다. 대자연의 이법을 퇴계는 所以然으로서의 理라고 하였다. 이 理는 氣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어떤 형체를 지니게 되며, 원래 理는 무형적인 것으로서 이론적으로 설명되어지고 관념적 사유에 의해서 인식되어지는 존재자인 것이다. 퇴계는 이 理를 우주의 眞有로서 至高의 가치로 인식했다. 따라서 퇴계는 산수경물을 감상하면서도 외형적 현상으로서의 감각적 형식에만 머물지 않고 그 현상 속에 내재하는 대자연의 이법, 즉 理의 세계를 인식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것을 인간이 갖고 있는 性에 연결시켜 그 性을 기르고자 했다. 때문에 청산의 푸르름과 유수의 끊임없음을 본받아 인간 性의 푸르름과 끊임없음에 대응시키고자 하였다. 이는 그의 持敬思想의 문학적 표출이라고도 할 수 있다.

둘째 首에서 幽蘭의 ‘들디 도해’와 白雲의 ‘보디 도해’라고 노래하고 있어 퇴계는 陶山 山水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기 위하여 白雲과 幽蘭을 매개로 사용하고 있다. ‘白雲在山’과 ‘幽蘭在谷’을 바라보는 賞心을 퇴계는 ‘듣기 좋고 보기 좋다’라고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종장에서는 도

35) 黃濁滔滔使隱形 安流帖帖始分明 可憐如許奔衝衷 千古盤陀石不轉傾 (陶山雜詠 盤陀石)

36) 陶山十二曲 後六曲 其五.

37) 陶山十二曲 前六曲 其四.

학자요 사대부인 입장에서 군주를 그리워하고 있다. 이것은 퇴계가 세상에 대한 일말의 관심을 보인 「前六曲」의 其五 ‘머리 막숨흐는고’에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다. 또 첫째 首의 ‘靑山’과 ‘流水’, 둘째 首의 ‘幽蘭’과 ‘白雲’은 자연에 연결되며, 각 수의 ‘萬古常靑’과 ‘彼美一人’은 같이 인간과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다. 萬古常靑은 ‘義’를 나타내는 것이고 彼美一人은 ‘忠’을 나타내는 것으로 본다면 자연의 완상을 통해 인간의 심성, 즉 義와 忠 등 유가적 심성을 길러야 할 것이라는 주장을 노래를 통해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2. 自然과 人間의 合一

성리학의 우주관 및 자연관은 유학 일반의 우주관 및 자연관과 마찬가지로 ‘天人合一’의 사상에 집약된다. 천인합일사상의 근거에는 우주 자연의 이법과 인간의 도덕이 하나의 원리로 일관되어 있다는 신념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자연과 인간을 사실과 가치로 대립시켜서 이해하려는 입장이 아니고, 조화의 원리를 구하여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해명되어야 할 관계로 파악하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성리학자에 있어서의 자연은 인식처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의미를 지닌다. 자연 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삶으로써 자연의 이법을 깨닫고 배우는 것이다. 『中庸』의 다음과 같은 구절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오직 천하의 지성만이 능히 그 성품을 다 할 수 있다. 그 성품을 다하면 그 사람의 성품을 다 할 수 있고, 사람의 성품을 다하면 만물의 성품을 다 할 수 있고, 만물의 성품을 다 하면 곧 그로써 천지의 화육을 도울 수 있고, 천지의 화육을 도우면 곧 그로써 하늘과 땅과 함께 셋이 될 수 있다.³⁸⁾

38) 唯天下至誠 爲能盡其性 能盡其性 則能盡人之性 能盡人之性 則能盡物之性 能盡物之性 則可以贊天地之化育 可以贊天地之化育 則可以與天之參矣(中庸 二十二章)

여기서의 ‘天下至誠’은 바로 聖人の 경지를 말하는 것이다. 성인은 천지의 화육에 찬조할 수 있고, 궁극에 가서는 천지와 어깨를 나란히 하여 天·地·人으로 병립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인간에게 하늘과 대등한 무게가 부여되어 결국 天(자연)과 人(인간)은 같아져야 할 것이라는 사상이 도출되었던 것이다.

퇴계는 佛家와 道家에 대하여 배척했는데 그 이유는 佛家の ‘頓超’와 道家의 ‘玄虛’는 유가의 현실적 자연관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淳風이 죽다하니 眞實로 거즌마리
 人性이 어디다하니 眞實로 올흔마리
 天下에 許多英才를 소겨 말숨홀가³⁹⁾

위의 시에서 ‘淳風이 죽다’는 불가와 도가의 자연관을 지적한 말이다. 인간이 자연을 완상하는 목적은 ‘도의를 기뻐하고 심성을 기르는 일’에 있다. 그것은 곧 인간 내부에 있는 성인의 덕목인 ‘인성이 어디다’라는 인간 본연의 性을 실현하는 것이다. 퇴계는 「聖學十圖」의 第二圖 「西銘」에서 ‘무릇 聖學은 仁을 구하는 데에 있다.’⁴⁰⁾라고 하였다. 求仁聖學은 곧 천인합일의 경지를 추구하여 성인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퇴계는 이러한 理를 실현하기 위하여 老佛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비판과 동시에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體察을 통한 인간과 자연의 합일 그것이다. 이에 대한 예는 앞에서 다룬 바 있는 「前六曲」 其六의 中章 ‘四時佳興이 사름과 혼가지라’고 한 구절에서도 잘 나타나는 바이다. 또한 「後六曲」 其五 초장과 중장에서 ‘靑山’과 ‘流水’를 제시하고 다시 종장에서 ‘우리도 그치디마라 萬古常靑 호리라’라고 하여 결국 인간인 우리가 자연인 청산과 유수의 정신을 본받아 일치되어야 할 것이라 하였다.

퇴계는 자연의 본성을 깨달아서 인간이 설정한 미적 기준으로 자연을

39) 陶山十二曲 前六曲 其三.

40) 蓋聖學在於求仁(退溪全書 卷一 西銘)

이해하고 適宜하게 해석하는 가운데서도 자연을 있는 그대로 관조하여 그 속에 내재하고 있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동시에 거기에 따르는 이법을 유추하여 그 이법에 충실하고자 하였다. 그러니까 「陶山十二曲」에 보이는 퇴계의 자연관과 인간관의 주제는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고 인륜과 도덕의 원리를 밝혀서 이를 실천해 나가는 데 있다. 퇴계는 이러한 본성, 즉 仁義禮智를 완전히 실현함으로써 天理와合一 되는 경지에 이른 사람을 聖人이라 불렀다. 이러한 성인의 경지는 자연과 인간이 만나는 바로 그 지점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V. 結 論

이상으로 본고에서 考究한 바, 퇴계문학에 나타난 자연관과 인간관을 그의 「陶山十二曲」을 위시한 漢詩 등의 문학작품을 통해 살펴 보았는데 이를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퇴계문학에 나타난 자연관을 風流와 起興의 대상으로 간주했다. 자연을 풍류의 대상으로 본 그는 자연에 소요하며 정신적 세계에서 유유자적하게 노니는 일뿐만 아니라 독서생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념적인 목적까지 성취하고자 했다. 따라서 퇴계는 그의 「陶山十二曲」의 「後六曲」, 其六 등의 작품에서 翰林諸儒가 향락적 유희의 현장으로 본 자연관을 극복하여 독서생활이라는 풍류를 통해 성인의 경지에 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퇴계는 정신적 세계에 대한 遊泳을 풍류로 보았으며 그 遊泳의 공간으로서 자연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퇴계는 자연을 起興의 대상으로 삼았다. 퇴계는 좋은 경치를 만나면 흥취가 일어 한껏 즐긴다고 할 만큼 그는 자연을 두고 興을 일으키는 대상으로 파악하였다. 그는 書室을 짓고 책 속에 파묻혀 있다가 花鳥月夕을 만나면 조각배를 강물에 띄우고 홀로 오르내리며 흥이 사라져야만 돌아왔던 것이다. 이는 바로 퇴계가 자연에 의해 흥을 일으키고 그 속에서 멋스럽게 지냈던 생활의 일면을 나타내고 있음을 뜻한다. 그

의 「陶山十二曲」의 「前六曲」其六과 其四 등의 작품에서 이러한 사실들이 잘 나타나고 있다. 이로 보아 퇴계는 자연을 起興의 대상으로 보았으며 이 때의 흥은 서정적인 것에서 출발하여 天理의 정연함을 인식하는 데서 오는 본질적, 이념적인 것으로 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퇴계문학에 나타난 인간관을 忘世의 警戒로 간주했다. 李麓의 詩歌에 불만을 품은 그는 새로운 심성을 「陶山十二曲」의 「前六曲」其一과 其二에서 제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는 이들 두 작품에서 인간의 심성은 마땅히 溫柔敦厚해야 한다는 것을 잘 다듬어진 語辭로 노래하고 있다. 「前六曲」其五와 「後六曲」其二를 통해 퇴계는 機心을 잊고 江湖에 은거하고 있으면서도 현실에 대한 관심과 백성에 대한 德化의 실천을 시를 통해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퇴계는 마음을 항상 집중하여 본성을 함양하고, 항상 각성하여 天理와 조화하는 공부, 즉 居敬의 인식을 「陶山十二曲」이라는 그릇에 담아 표현하고 있다.

셋째, 퇴계문학에 나타난 자연관과 인간관의 관계를 논함에 있어서 賞自然과 養性, 자연과 인간의 합일이라는 양면을 통해 考究하였다. 賞自然과 養性의 경우 「陶山十二曲」의 「後六曲」其五와 「前六曲」其四의 경우는 ‘靑山’과 ‘流水’, ‘幽蘭’과 ‘白雲’은 자연에 연결되며, ‘萬古常靑’과 ‘彼美一人’은 같이 인간에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다. 여기에서 다시 ‘萬古常靑’은 義를, ‘彼美一人’은 忠을 나타내는 것으로 본다면 자연의 완상을 통해 인간의 심성, 즉 義와 忠 등 유가적 심성을 길러야 할 것을 노래를 통해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자연과 인간의 합일에 대해서는 「陶山十二曲」의 「前六曲」其三 등을 예로 들고, 퇴계의 자연관과 인간관의 주제는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고 인륜과 도덕의 원리를 밝혀서 이를 실천해 가는 데 있다고 했다. 퇴계는 이러한 본성, 즉 仁義禮智를 완전히 실현함으로써 天理와合一된 경지에 이른 사람을 聖人이라 부르고 이러한 경지는 자연과 인간이 만나는 바로 그 지점임을 말했던 것이다. 따라서 퇴계문학에 나타난 자연관과 인간관의 관계는 상호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